

‘당대 중국식 문예 부흥’에 따른 역사건축의 재인식

황문호
칭화대학 건축학원
박사과정

중국 근대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 이후 중국의 문화예술계는 서양 근대 예술의 형틀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본토에 변화를 가져왔다. 청나라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서양의 문물이 전래되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문예 전반에 있어서 자립적이고 체계적인 개방과 수입은 신문화운동과 함께 이뤄졌다. 이러한 문예 토대 속에서 서구 건축의 본격적인 도입은 1920년대 해외로 나간 다수의 유학생이 전문 건축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후 이루어졌다.

한편 1990년대 중기에 문화를 개방한 후 서양 현대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각종 이론들이 전파되었고, 이와 더불어 경제 규모가 팽창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바깥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의 구조와 도시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중국 학계나 문화계에서 ‘당대 중국식 문예 부흥’이라 일컫는데,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과는 그 배경과 실질적 내용이 다르다. 르네상스가 고대 그레코로만의 문예를 부흥하여 인본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꽃피웠다면, 지금 중국에서 이뤄지는 문예 및 사상의 변화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그들이 이전에 금기시하던 봉건적인 전통 사상에 대한 회고, 서양의 역사 속 사상과 신문화들이 도시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건축적 일면으로는 대도시 예술 문화구의 발달과 종교적 장소의 재창조, 역사적 테마를 근거로 둔 역사 문화 경관의 재건설 사업을 들 수 있다.

역사 문화 보호구, 보존과 개발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식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도시의 건축물들이 해일처럼 높이 지어졌고, 향촌에서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표방하며 문화유산들을 낙후된 상징으로 간주하고 철거하여 새롭게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 각 시·현의 지도자들은 유산 보호 작업을 사회주의의 방해물로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문화유산’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건설 사업과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문화유산의 자원 가치가 인식되고 중국 문화의 정통성·역사성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문화유산의 보호와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반된 상황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방 향촌에서 비록 역사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철거·이전되고 있다. 농촌에서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이 철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가호 한 주택만을 인정하는 법 개정에 의해 두 개 이상 주택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평방미터당 200위안의 배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이 중국역사문화명진(中国历史文化名镇) 또는 중국역사문화명촌(中国历史文化名村)의 명단에 등록되자마자 그 오래된 방들을 모두 철거·개조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상업화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그 오래된 방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생산 가치만 생각한 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1982년을 시작으로 1986년과 1994년, 3차에 걸쳐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 99곳을 공포하고 매해 그 수를 늘려 2016년 현재 130곳이 지정되었다. 또한 역사문화명진 252곳, 역사문화명촌 276곳 외에 2,500개가 넘는 전통촌락이 있다. 이렇게 지정된 각 역사 도시와 향촌들은 옛

건축을 이용한 경관을 조성하고, 이는 역사 문화 테마를 이용한 지방 경제개발의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개발상·설계조직 세 주체의 주도로 이뤄지는데,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평야오(平遥)나 리장(丽江)처럼 고성(古城)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수리를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국가급 설계 방안들로, 수도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4곳의 직할시와 23개 성의 성도처럼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역사지역을 개발한 경우이다. 셋째는 비교적 덜 알려진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의 건축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러 역사 건축 경관 가로로 관광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건물 단일체 혹은 부분들이 현대 건물의 내부 설계에서 이용되거나 더욱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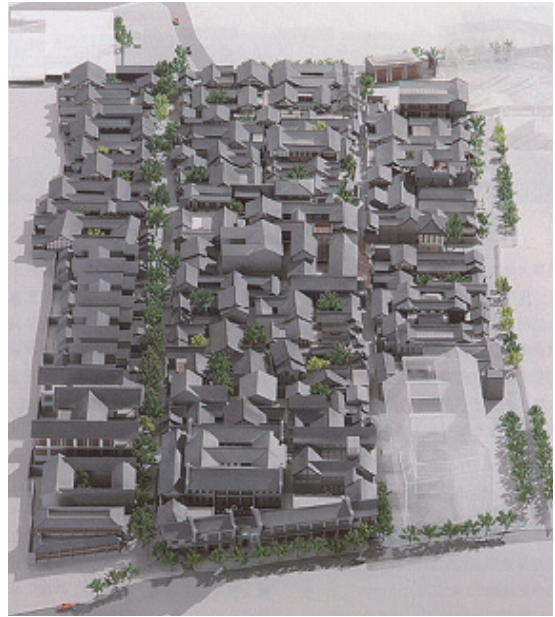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명성을 얻어 다른 지역 도시의 개발 사업에 늘 참고 대상이 되는 청두(成都) 지역의 ‘관자이샹(宽窄巷)’과 근대 역사 건축 지구를 도시 내 상업 문화 지구로 변화시킨 상하이(上海)의 ‘신텐디(新天地)’를 실례로 들 수 있다.

청두 관자이샹

쓰촨성(四川省)의 성도인 청두는 삼국지 촉국의 고도(古都)로 제갈량과 유비의 묘와 사당(武侯祠)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개발된 진리(锦里) 지역 바로 북편에 관자이샹이 있으며, 최근에 대자사(大慈寺) 역사 지구에 이 사원을 중심으로 한 위안양(远洋) 개발 공사의 타이구리(太古里)가 있다. 관자이샹은 1980년대 청두 역사문화명성 보호 구획에 포함되며 2003년에 보호성 개조가 시작되어 2008년 완공 후 대외 개방이 이뤄졌다. 그중 핵심 보호구역은 대략 6만 6,590m² 면적의 지역으로 청나라 시기의 유적들로 이뤄진 북방 후통식 골목길이 있으며, ‘관샹즈(宽巷子)’, ‘자이

샹즈(窄巷子), ‘징샹즈(井巷子)’ 등 세 개의 전통 거리로 구성된다.

파손된 역사 건축물이 수리·복원되고 무분별하게 지어진 현대 건축물이나 어지러운 거리가 정리되었으며 소방시설도 확충되었다. 골목 입면에서 청나라와 중화민국 시기의 품격이 드러나도록 세부 장식이나 건축 골조 등도 당시의 공예기법에 맞춰 조성하였다. 또한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 초기에 지어진 사합원(四合院) 원락 45곳을 수리·개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중건하였다. 건축 구조적으로 ‘옛것을 수리하여 옛것처럼 보이게 한다(修旧如旧)’는 원칙을 적용하여 쓰촨 민가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민가 구조의 형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의 기능 또한 청두 고유의 지역문화(상업적 기능)와 고유한 생활 체험을 반영하되 외래문화를 융화한 ‘중서합벽(中西合璧)’을 실현하고 있다.



관자이상 준공 이후 모형

자료: 刘伯英, 黄靖, 成都宽窄巷子历史文化保护区的保护策略, 建筑学报 历史保护与研究, 2010.2.



관샹즈 남측 입면도 (부분)

자료: 刘伯英, 黄靖, 成都宽窄巷子历史文化保护区的保护策略, 建筑学报 历史保护与研究, 2010.2.



자이샹즈 북측 입면도 (부분)

자료: 刘伯英, 黄靖, 成都宽窄巷子历史文化保护区的保护策略, 建筑学报 历史保护与研究, 2010.2.



관자이상 상점 입면

상하이 신텐디

상하이 정부는 1990년대에 도시 개조 공정계획을 통해 다량의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정리할 계획을 세우는데, 타이핑차오(太平桥) 지역의 옛 골목과 상하이 특유의 스쿠먼(石庫門)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도 이 범위에 포함되었다. 1999년 루이안그룹(瑞安集团)이 타이핑차오 지역 대지의 개발권을 획득하여 52ha 규모의 신텐디 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우선 루이안그룹은 6억 7,000만 위안을 들여 1만 명에 가까운 거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상업·오락·문화의 복합기능으로 지역을 재개발하였다. 약 52ha의 대지에 총 건축면적은 110만 m²로 그중 상업 14만 1,000m², 호텔 6만 1,000m², 오피스 39만 m², 아파트 51만 4,000m²로 사용되고 인공 호수 등 녹지 경관



신텐디 위치도

자료: 姜文锦, 陈可石, 马学广, 我国旧城改造的空间生产研究—以上海新天地为例, 城市发展研究 18卷 2011年 10期



개발 전후 변화

자료: 姜文锦, 陈可石, 马学广, 我国旧城改造的空间生产研究—以上海新天地为例, 城市发展研究 18卷 2011年 10期

이 함께 설계되었다. 1999년 초에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에 완공되었다. 신텐디는 ‘깍뎀기는 남기고 속은 제거해 입면은 옛것을 정리하여 더욱 옛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부에는 현대적 중앙 설비들로 채워 더욱 새롭게 한다’는 설계 개념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스쿠먼 양식 건축의 보호와 증진은 ‘옛 병에 새 술을 담는다(旧瓶装新酒)’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화유산, 정통성과 문화적 가치의 상징으로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베이징 798 예술구에서 전시된, 건축가 겸 예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왕씨 사당을 소개하고자 한다. 갤러리아 컨티누아(Galleria Continua)와 탕 컨템포러리 아트센터(Tang Contemporary Art Center)는 저장성(浙江省) 진화(金华) 지역에 있는 명나라 말 시기의 왕씨 사당을 1,500여 개의 부속품으로 나누어 두 전시공간에 세심히 재조립하여 전시하였다. 갤러리아 컨티누아와 탕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의 벽을 뚫어 도리 방향의 부재들이 지나가게 설치하고 차수와 두공에 채색을 하고 상들리에를 설치하였다. 아이웨이웨이가 진화시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을 사들일 때에는 이미 많이 파괴되어 있었으나, 건축가로서 그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건물을 재구성하고 이와 함께 몇몇 설치작품을 함께 두었다. 관람객은 한쪽 갤러리에 설치된 부분만을 볼 수 있고, 반대편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당을 바라보는 관객들에 의해 사당이 완전성을 지니게 한다.

이는 고건축을 이용하여 역사 테마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인식을 해체하려는 의도이다. 봉건 시기의 역사적 고건축이 현대 자본주의적 사회의 인식과 당대 중국 문화 배경 속에서 재생된 개인의 주관성을 통해서 중국이 가지는 현대의 문제를 아이웨이웨이의 방식으로 비평하고 고찰하게 한다.



아이웨이웨이의 왕씨 사당

고건축물들이 상품으로 시장에 나오고 또한 이를 소재로 이용하여 문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옛 건축에 대한 인식은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문화와 정통성과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 张鸿雁, “中国式城市文艺复兴” 新论, 社会科学 2009年 第3期, pp.44~47.
- 胡适, 中国的文艺复兴,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1年版.
- 朱光亚, 历史文化资源的开发与建筑环境创造, 时代建筑, 1998.3, p.81.
- 朱光亚, 建筑遗产保护工作中的经济学课题讨论, 中国房地产估价与经纪, 2014.6, p.25.
- 刘伯英, 黄靖, 成都宽窄巷子历史文化保护区的保护策略, 建筑学报 历史保护与研究, 2010.2, pp.44~47.
- 姜文锦, 陈可石, 马学广, 我国旧城改造的空间生产研究—以上海新天地为例, 城市发展研究 18卷 2011年 10期, pp.84~87.
- Ai Weiwei, Wang Family Ancestral Hall, 2015, press release(<http://www.galleriacontinua.com/exhibitions/exhibition/306>)